

## 새롭게 찾은 7만 동문...정책적 관리 시급

## 동문회관 건립 및 동문회 지원 우선돼야

지난 3월 시작한 '동문찾기 캠페인' 작업이 막을 내렸다. 약 5개월 간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이번 작업으로 찾아낸 동문의 수는 약 7만명. 정확히 6만9천5백5십4명이다. 인명록, 졸업앨범, 전화번호부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찾아낸 이 동문들은 앞으로 우리학교 총동문회가 내년 3월 발간할 예정인 동문록에 각종 신상이 게재되어 앞으로 우리학교 동문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이 많은 동문들이 저절로 찾아졌을 리는 만무하다. 부과세를 포함, 1억 6천여만원의 예산과 4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을 투자해 얻어낸 결실이 바로 7만명 동문의 명단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96년 10월부터 학내 각종 매체와 기타 홍보물들을 통해 경회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기금 모금과 매를 같이 해서 펼쳐진 대강당 완공·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 운동, 등록금 한 번 대내기 운동,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기타 특별목적 사업기금 조성 운동 등은 기금 모금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기금 모금은 얼마 가지 않아 한계에 다다랐다. 기금 모금의 대상이 기껏해야 교수, 직원, 학생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동문'이었다. 타학교에 비해 동문회의 결속력이며 영향력이 부진했던 우리학교로서 동문발굴은 학교발전에 있어 아직 캐낸 흔적이 없는 금광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한 사업이었다.

이에 학교가 시작하게 된 작업이 바로 '동문찾기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주요 작업내용은 투입된 자원봉사 인력을 이용, 그동안 동문록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게재되어 있었다해도 연락이 불가능했던 동문들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현재 및 연락처, 주소 등을 기록해 동문록을 재작성하는 것이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학교 총동문회 측이 보유하고 있었던 동문록의 경우 약 20%의 신상만이 정확했다고 하니 동문록 재정리의 필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을 들여 찾아진 동문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만으로 이번 작업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엔 이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학교가 지녀왔던 동문 관리의 문제점은 너무도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로 동문회관의 부재를 들 수가 있다. 서울 시내 타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대, 연·고대의 경우 지난 96년 6월 30일 고대 동문회관의 완공을 끝으로 세 학교 모두가 동문회관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양대와 중앙대 역시 내년 말이면 동문회관이 완공된다.

둘 경우 부지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공사비는 동문들의 모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부지 제공조차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구현서씨는 "사실 동문들을 상대로 동문회관 건립에 관한 모금활동을 펴려고 해도 학교측에서 부지 제공 의사를 비추지 않으니 회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과동료나 교수님의 소식을 접하면서, 또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을 보면서 모교에 대한 정을 늘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보는 동문 활동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동문찾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실시한 동문들의 호의도 조사 결과에서 보면 60%가 넘는 인원이 모교에 대해 호의적인

그리워질 때 그들을 언제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학교측의 노력이 우선될 때만이 동문의 학교발전을 위한 환경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동문들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강남이 기자)

오늘 국제평화회의 개최  
수원, 광릉캠퍼스 곳곳서

UN제정 '세계평화의 해' 11주년 및 제16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평화회의가 오늘부터 우리학교에서 개최된다.

우리학교, UN한국협회, 세계대학총장회, 밝은사회 국제클럽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데 이 행사에는 통일원 부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나면 국제평화회의가 개최되는 데 제1,2 학술회의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 1학술회의는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총 3분과로 나누어 실시된다.

제 2학술회의는 오는 5일 있을 예정인데 '21세기의 세계시민'이라는 주제로 2개 분과로 나누어 토론한다.

##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니양: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유니텍: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 사령

편집장:

공광섭(토목 3)

- 이상 임기만료 -

편집장:

최수정(신방 3)

- 이상 9월 1일자 -

## 사 고

## 46기 수습기자 모집

평가 편집회의. 거둬되는 전파. 열방송. 일변지의 오백과 양념치킨. 일주일 중 유일하게 널널한 화요일. 금요일 ALL NIGHT. 새벽 1시에 먹는 순대와 떡볶이. 원고 마감. 토요일 조판. 새우장. 플러진 편집실. 피지재한 얼굴. 원고 청탁 가슴 졸임, 실패와 실패속에 청탁했을 때의 가슴 후련함.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의 가슴설렘. 토요일의 치열함. 밤새 쓴 기사가 신문에 나왔을때의 가슴 벅창. 기사 아래에 자랑스럽게 빛나는 내 이름. 내가 쓴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을 볼 때의 기쁨과 속스러움. 나를 알고 나를 믿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동기. 일할 때 무섭지만 슬픔을 편 연애 상담 전문인 선배.

힘든 순간마다 잠깐씩 피어나는 보람으로 대학주보 기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사실 대학주보기자가 되기로 한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대학주보 기자로 남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남은 대학생활, 당신의 열정을 소중한 곳에 쓰십시오.

모집일시: 서울 캠퍼스 오는 23일

수원 캠퍼스 오는 24일

전형방법: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

원서 접수 및 교부: 모집일 까지 양 캠퍼스 편집실.

문의: 서울 캠퍼스 02)961-0095

수원 캠퍼스 0331)280-2056

## 한가위 귀향버스 운행

##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가능

우리학교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귀향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교통편을 마련하였다.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제주도 왕복비행기편(12일 오후2시 김포공항발, 18일 오후9시 제주도발)과 전국노선 귀향버스(12일 11시 대운동장발)를 운행하며 요금은 각 교통요금의 70%선이다.

예매는 비행기편이 인권복지위원회와 중앙대자보관 앞에서 오는 2

일부터 4일까지, 버스의 경우는 중앙대자보관 앞에서 2일부터 4일까지, 8일부터 9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한편 수원캠퍼스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서도 17대의 귀향버스를 마련해 학생들의 귀향을 도울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학생회관 로비와 3층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서 하며 당일접수는 배차와 인원조정상 받지 않을 예정이다.

## 귀향버스 행선지 및 가격

| 행선지        | 가 격   | 행선지    | 가 격    |
|------------|-------|--------|--------|
| 강릉         | 5,500 | 강릉     | 6,000  |
| 동해, 삼척     | 6,500 | 포항     | 10,000 |
| 속초         | 7,000 | 대구     | 8,000  |
| 원주, 제천     | 3,500 | 전주     | 6,500  |
| 대구         | 7,000 | 광주     | 8,800  |
| 김천, 구미     | 6,000 | 순천     | 10,000 |
| 안동, 영주     | 7,000 | 목포     | 9,500  |
| 경주, 포항     | 8,500 | 남원     | 8,000  |
| 부산         | 8,500 | 부안     | 10,500 |
| 울산         | 9,000 | 마산     | 9,000  |
| 진주         | 9,500 | 울산     | 9,500  |
| 창원         | 3,000 | 여수, 순천 | 11,000 |
| 충주         | 3,500 |        |        |
| 청주         | 3,000 |        |        |
| 충청         | 3,500 |        |        |
| 천안         | 2,000 |        |        |
| 대전         | 3,500 |        |        |
| 당진, 서산, 태안 | 5,000 |        |        |
| 전주         | 5,000 |        |        |
| 남원         | 7,000 |        |        |
| 익산, 군산     | 5,500 |        |        |
| 광주         | 7,000 |        |        |
| 목포         | 9,000 |        |        |
| 여수, 순천     | 9,500 |        |        |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 교시탐

## 옥의 티

▶대선시기가 다가오면서 언제부터인가 '박정희 신드롬'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최단 시간에 일으킨 대통령. 국민들을 사로잡는 지도력. 무조건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그를 신드롬에까지 올려놓은 사람들이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가 집권하던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가 지도력이라고 평가받는 능력은 비민주적 명령이 부른 국민들의 복종이 그에게 부여해 준 결과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매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거라고.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 그래도 결과가 중요하긴 한 것이다.

▶우리학교는 열린 행정을 위해 방중에 행정조직을 대거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많은 부서가 통폐합 되고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문제는 이용 학생들이 간간히 혼란을 빚는다는 데에 있다. 일반 행정부서야 그렇다 치고 도서관도 기존의 전자정보서비스 언어교육연구원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곳인데 명칭 변경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혼란을 빚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행정부서 자체에서도 변화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내전화 담당자가 새로운 부서명을 알지 못해 안내에 곤란을 겪었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인해진다.

▶언제고 했어야 할 이번 개편의 취지는 말 그대로 좋았다. 하지만 학교측이 새로 바뀐 행정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내부적으로야 취지가 좋은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행정의 대상이 될 학생들이 바뀐 편제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겪는다면 그 제도는 결국 좋은 제도로서 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개편은 발표로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편된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용하는 구성원이 편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행정개편의 완성시기가 아닐까.

(강남이 기자)

## 지/면/안/내

2면 검열에 발목잡힌 전자민주주의

3면 검열- '이유없는 반향'은 없다

4면 김수곤 부총장 특별기고

5면 철거민 故 박순덕씨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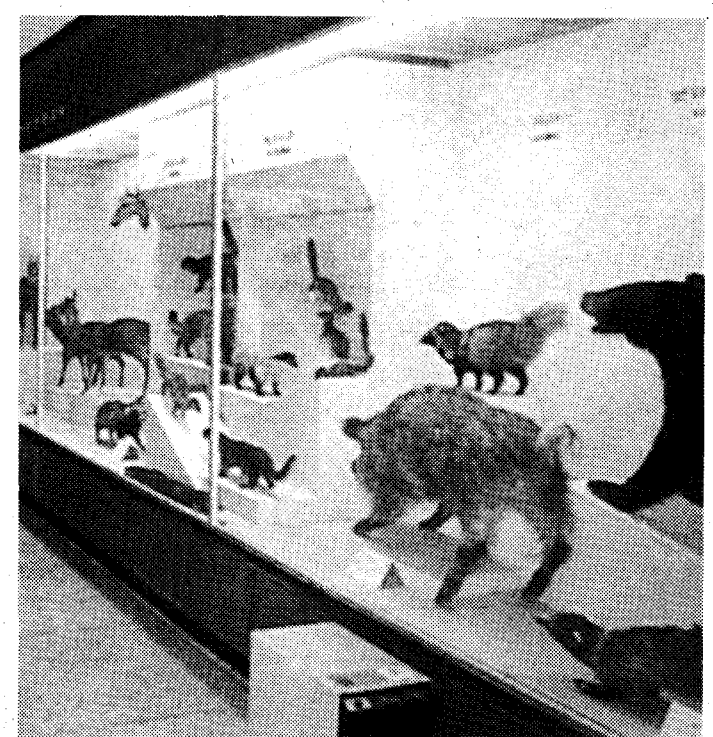
6~7면 후기 학위수여자 명단

8면 시대 흐름속 문화 '전차만발'

9면 지역·의료원 소식

12면 동문 인터뷰-경희의 이름으로

## 최종 등록 마감 오는 12일

자연사 박물관  
개관 안내

본교 자연사박물관에는 동식물을 비롯한 각종의 희귀하고도 방대한 자료(18,000여 점)가 집대성되어 있어 자연계의 생태와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에게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개방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 이용방법 및 절차

1. 관람방법

단체는 전화예약 후 월~금(10시~4시) 관람 가능

개인은 전화예약 후 토요일(10시~5시) 관람 가능

2. 관람료: 무료

## 자연사 박물관

Tel 961-0142, 0143